

2004 국제대학박물관위원회(UMAC) 서울대회

세계대학박물관 위원회를 개최하고서.

배기동(한국대학박물관협회장, ICOM사무총장)

이번 서울 세계박물관대회의 개최는 우리나라 박물관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세계대회이었다. 여기에 대학박물관 위원회는 후발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등록하였다. 한국대학박물관협회도 이청규 영남대학교 박물관장과 라선화 이화여대 박물관 학예실장을 비롯한 다수의 인사들이 세심한 준비를 한 덕분에 대단히 성공적인 국제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그동안 한국측 연락관으로서 활동한 두 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린다.

대학박물관 위원회의 프로그램은 학술적인 부분과 답사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금년도 대학박물관 전국대회로서 개최되었다. 답사여행은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이청규 관장의 특별한 노력으로 대구와 경주를 다녀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흡족해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다. 대회의 개최 동안 많은 대학박물관을 관람할 기회는 없었지만 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 그리고 계명대학교 등의 세 박물관의 관람이 자연스러이 이루어지게 되어 한국 대학박물관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셈이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관한 계명대학교 박물관은 전시와 시설에서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숙명여대 박물관의 김태자 부관장의 지휘로 대회장에 구성된 대학박물관 전시 부스도 한국의 대학박물관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그 수준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대회의 주관에 앞서서 이화여대 박물관 팀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홈페이지도 한국의 대학박물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대회의 운영의 연락지점으로서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이러한 모든 작업에 관련된 우리 대학박물관협회의 인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주최교로서 본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직원들의 노고도 기록하여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초반에 김 승 학예사가 담당을 하였지만 급작스러운 전출로 인하여 김윤아 학예사가 본부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대학박물관의 훌륭한 인사들과 체제가 유감없이 발휘된 결과로서 이 위원회 중에서 가장 알차게 진행된 것이라고 자평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대학박물관의 학예원으로서 이번 대회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대학박물관과 사례 비교를 할 수 있는 기회이었고 또한 장기적으로 대학박물관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박물관협회 회원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앞으로 박물관학 또는 다양한 인문학과 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교류체제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류체제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의 대학박물관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한국 대학박물관의 운영목표나 운영의 관행 그리고 운영의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발전의 목표설정에는 외국의 좋은 선례들과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협회로서 충분히 인식하고 회원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대회 기간 동안 아쉬운 점은 대회의 참가비가 비싸고 여러 날 지속되어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전에 참가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각 박물관의 정보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협회장으로서 전 일정을 회원들이나 외국인 참가자들과 함께 하지 못한 점도 본인으로서나 회원들로서 아쉬운 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대학박물관협회도 수차례의 세미나를 통하여 앞으로의 새로운 진로개척을 고민하여 왔다. 대학박물관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이번의 세계박물관대회는 우리에게도 큰 자극이었고 또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 대회이었다. 이러한 자극과 정보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우리 대학박물관이 새롭게 변신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수년간에 한국의 박물관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우리 대학박물관은 인력이나 시설 그리고 수장품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에서 위축되고 있는 면이 있다. 이번의 대회를 계기로 한국 박물관의 리더 그룹으로서 박물관의 새로운 모델 창출에 앞서도록 하여야 하는 다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대학박물관 인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만간에 그동안 작업에 대하여 대회를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며 우리 대학박물관의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UMAC CONFERENCE KOREA 2004 경과보고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가 10월2일부터 COEX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소속된 각종 국제위원회(IC)의 분과회의(10월4일-6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국제대학박물관위원회 회의는 한국대학박물관협회(KAUM)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우리 협회는 이미 지난해 미국 오클라호마 대회 당시부터 대학박물관협회에서 대표단(이청규, 강봉원)을 파견하는 등 오랜기간 동안 국제대학박물관위원회 회의의 준비작업을 하여왔다. 배기동 협회장과 연락관인 나선화(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학예실장), 이청규(영남대학교박물관장)가 주축이 되어 2004년도 대회의 주제, 발표자, 장소 및 답사일정 등을 UMAC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행사를 준비·진행하였다. 지난 7월에는 UMAC 회장인 Peter Stanbury 교수(호주, Macquarie University)가 방한하여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대회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대회일정에 관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제51회 추계학술발표회와 정기총회를 UMAC 대회로 같음하고, 1박2일 일정의 영남대학교박물관, 경주 일대, 계명대학교 박물관의 답사를 통하여 우리 회원교의 발전된 모습과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2004년 국제대학박물관위원회 대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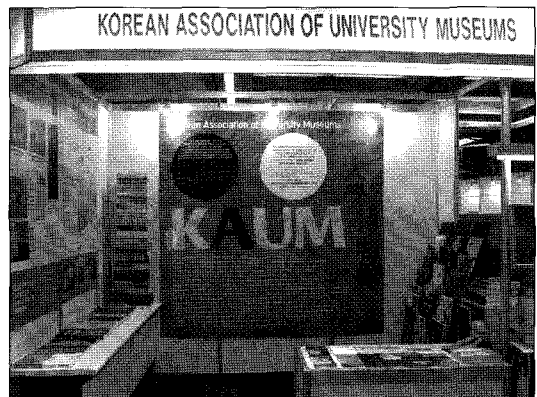
1. ICOM UMAC CONFERENCE 2004

〈 대주제 : 대학박물관의 전통문화와 무형문화유산 〉

- * 제1주제 : 대학박물관 - 새로운 목적, 미래의 가능성
- * 제2주제 : 타인들이 보는 대학박물관
- * 등록자 : 총 26개국 94명
(외국인:51명, 내국인:43명)
- * 발표자 : 23명
- * 일 정 : 2004년 10월 4일 - 6일

2. 코엑스 특별전시

ICOM 조직위원회에서는 행사기간동안 코엑스 장보고홀에 국내·외 학술기관 및 전시관련 27개 기관(국내 20개, 국외 7개 기관)의 전시부스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전시부스 전경

〈ICOM UMAC 대회일정〉

<p>10월 4일(월) COEX 주 제 : <u>Traditional Culture and Intangible Heritage in University Museums</u></p>
<p>- 환영사 및 개회사 (Chair of KAUM, Chair of UMAC, 안병영 부총리) - 주제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동 / University Museums in Korea · Yun shun Susie Chung & Insook Lee / Traditional Culture and Intangible Heritage · Anne Marie Freybourg / The Luxury of University Museum and Collections · 함한희 / 한국의 민속학 - 흥부전의 예를 들어 · Bonnie G. Kelm / Moving Forward by Looking Back · Julia Cordova-Gonzalez / Pre-Columbian Andean textiles · Venkata Ramana Rayaprolu / Threshold of the Apparent and Hidden · 심재석 / 사진, 유물로서의 사진자료 · Ocal Oguz / University Museum in Turkey <p>- UMAC 운영위원회 회의</p>
<p>10월 5일(화) 서울대학교박물관 주 제 : <u>University Museums : New Purposes ; Future Possibilities</u></p>
<p>- 환영사 (김영나 서울대학교박물관장) - 주제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선화 / 무형문화유산 개발을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의 예 · Aldona Jonaitis / Creating an Art Gallery for a University Museum · Andrew Simpson / Intangible Heritage of University Earth Science Collections · Bary Lord / University Art Museums : Reorientation or Expansion? · Cornelia Weber / University Collections as Custodians of Oral Heritage · Peter B. Tirrell / A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Museum Assessment Program for University Museum · Jane Legget / Out of sync? <p>- 서울대학교 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nore D. Miller / Exhibition Strategies · Mauricio da Silva / New forms of museological communication at the Zoological Museum of University of Sao Paulo · Il Sun / The Importance of Visual References and University Museums <p>-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53회 정기총회 - 만찬</p>
<p>10월 6일(수) 코엑스-영남대학교 주 제 : <u>University Museums through the Eyes of Others</u></p>
<p>- 주제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enny Horder / Getting the Balance Right · Panu Nykänen / Exhibition as a tool of Technical Education 1879-2004 · Leonard Janiszewski & Effy Alexakis / Hardnessing the Intangible <p>- 영남대학교까지 버스로 이동 - 영남대박물관 관람 및 강연 : 이상천 (영남대 총장) / 대학의 운영과 대학박물관의 역할 - 만찬, 한국 문화의 밤</p>
<p>10월 7일(목) 답사 (영남대 - 경주 - 계명대 - 서울)</p>

를 설치하여, 관련기관의 홍보와 소개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전시부스를 마련하여 원활한 협회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행사기간 중 4000여명의 국내외관람객이 전시회를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협회홍보물

우리협회 부스 전시의 주요 목적은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대학박물관협회를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실제 전시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서울지역 주요대학박물관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두 차례의 전시기획 회의를 진행하여, 회의결과 가장 최근 박물관개관을 한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에서 전담하여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시를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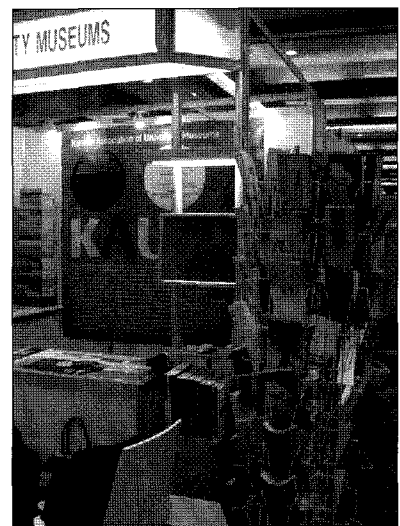


전시부스를 찾은 관람객과 설명하는 자원봉사자

이번 전시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간결하고 강렬한 디자인 구성으로 국립기관과 전시 전문업체의 대형 부스사이에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한국대학박물관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회원교의 발굴현장을 표기한 남한 전도와 현재 ICOM 대회를 기념하여 개최한 회원교의 특별전을 안내하여 현재 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홍보하였다.

또한 각 회원교의 홈페이지 주소를 정리하여 책갈피 형식으로 디자인한 협회 홍보물 제작·배포하고, 협회의 영문홈페이지를 제작(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하여 각 회원교의 홈페이지를 링크하여 부스전면의 모니터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였다.

모든 작업이 회원교의 협조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고, 각 회원교에서 제공해 준 브로셔와 도록, 보고서를 비치하여 전국의 대학박물관자료와 정보를 우리협회 부스에서 한번에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에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크나



각 회원교의 안내브로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3. 답 사

- 참여 총인원 : 41명 (외국인 참여자 23명, 내국인 참여자 18명)
- 답사일정 :

날 짜	시 간	항 목	장 소
10. 06	11:00~16:00	서울 COEX - 경산 영남대	전세버스
	16:00~18:00	박물관 투어와 강연	영남대박물관
	18:00~22:00	만찬, 문화행사(전통문화공연)	영남대박물관
	22:00~	숙소로	영남대박물관 국제관
10. 07	08:00~09:00	영남대-양동마을	전세버스
	09:00~11:00	양동마을 투어	양동마을
	11:00~12:00	경주 대릉원	경주
	12:00~13:00	점심식사	한식당
	13:00~14:00	국립경주박물관 방문	국립경주박물관
	14:00~15:00	경주 - 계명대	전세버스
	16:00~18:00	박물관 투어와 강연	계명대박물관
	18:00~20:00	만찬	계명대
20:00~24:00	계명대 - 서울	전세버스	

4. 효 과

국제대학박물관위원회(UMAC)는 국제위원회 중 가장 늦게 설립된 위원회이지만, 각각의 구성원들은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서울대회에 참여하여 대학박물관의 나아가야 할 길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여러 회원교는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활동범위를 다양화 하고 향후 스웨덴 옅살라 대학에서 열리는 2005년 국제대학박물관대회에도 함께하여 앞으로의 대학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UMAC CONFERENCE KOREA 2004 참석자 명단

* 외국인

No.	NAME	COUNTRY	No.	NAME	COUNTRY
1	BUSHELL, Lydia	AUSTRALIA	27	NAKAMURA, Hiroko	JAPAN
2	CHRISTOPHERSEN, Axel	NORWAY	28	NISHI, Genjiro	AUSTRALIA
3	CHUNG, Yoon Shun Susie	USA	29	NOACH, Tennile	FINLAND
4	DE CLERCQ, Steven	NETHERLANDS	30	NYKANEN, Panu	TURKEY
5	EDWARDS, Suzanna	AUSTRALIA	31	OGUZ, Ocal	USA
6	ESPINOZA, Beatrix	CHILE	32	ORIZ, Jose	MADACASCAR
7	FANG, Lee-Shing	CHINA	33	RAMANIVOSOA, Beby	INDIA
8	FERRIOT, Dominique	FRANCE	34	RAYAPROLU, Venkata Ramana	MEXICO
9	GOB, Andre	BELGIUM	35	RICO MANSARD, Luisa Fernanda	JAPAN
10	HEINAMIES, Kati	FINLAND	36	SANO, Kenji	AUSTRALIA
11	HIGUCHI, Keiji	JAPAN	37	SIMPSON, Andrew	AUSTRALIA
12	HORDER, Jennifer Ann	AUSTRALIA	38	STANBERRY, PETER	GREECE
13	IM, Sung Hyun	U.K	39	THEOLOGI-GOUTI, Peny	USA
14	JONATIS, Aldona	USA	40	TIRRELL, Peter B	GERMANY
15	KELM, Bonnie	USA	41	WEBER, Cornelia	USA
16	KING, Linda	USA	42	Malis Willam	AUSTRALIA
17	KOVALIOVA, Tamara	RUSSIAN FEDERATION	43	Effy Alexans	AUSTRALIA
18	LAURITZEN, Eva Maehre	NORWAY	44	Teonarel Janiszewski	FINLAND
19	LEGGET, Jane	NEW ZEALAND	45	Tiina Metso	FINLAND
20	LIAO, Jen-I	CHINESE TAIPEI	46	Jouni Saarenpaa	USA
21	LIU, Wan Chen		47	Lenore Miiler	PHILIPPINES
22	LOAD, Barry	CANADA	48	Isidro Abano	TURKY
23	MIKKELSEN, Egil	NORWAY	49	Ocal Ogu	CHILE
24	MONACO, Giuseppe	USA	50	Julia Cordova-Gonzalez	IRAN
25	MSIMANGA, Audrey	ZIMBABWE	51	Moloud Valadi	
26	MUNKTELL, Ing-Marie	SWEDEN			

* 내국인

No.	이름	소속	No.	이름	소속	No.	이름	소속
1	최정필	세종대박물관	16	박현수	전주대박물관	30	안정인	숙명여대박물관
2	주은희	한양여대박물관	17	주명준	전주대박물관	31	김윤아	한양대박물관
3	김유정	이화여대박물관	18	김영연	한양대박물관	32	김소형	한양대박물관
4	이인숙	ICOM 부위원장	19	김대일	한양대박물관	33	배성환	고려대박물관
5	김영나	서울대박물관	20	신수지	삼성출판박물관	34	정호섭	고려대박물관
6	이청규	영남대박물관	21	조성호	한양대박물관	35	김예진	고려대박물관
7	임수연	Texas Univ.	22	김기룡	한양대박물관	36	홍경아	숙명여대박물관
8	나선화	이화여대박물관	23	강정운	이화여대박물관	37	홍민영	한양대박물관
9	심재일	영남대박물관	24	박기희	이화여대박물관	38	홍경남	한양대박물관
10	선 일	서울대박물관	25	차민호	한양대박물관	39	정대화	한양대박물관
11	함한희	전북대박물관	26	구준모	한양대박물관	40	정승기	한양대박물관
12	하우봉	전북대박물관	27	강태홍	한양대박물관	41	유재훈	한양대박물관
13	오일환	경희대박물관	28	전범환	한양대박물관	42	정해란	숙명여대박물관
14	정명아	서울시립대박물관	29	홍혜원	한양대박물관	43	리탈보	숙명여대박물관
15	김태자	숙명여대박물관						